

News
& News

첫 치과의사 전문의 220명 배출 소수정예 8% 물거품 최종 합격자 비율 95.7%

2008년도 치과 역사상 처음으로 배출된 치과의사전문의 1호는 모두 220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시험 결과를 발표, 지난 1월 24일 필기시험을 통과한 229명 중 9명이 탈락해 22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과 역사상 첫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이란 열매를 맺을 수는 있었으나 대의원총회의 합의사항인 소수정예 8%를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의원총회의 결의 대로라면 졸업생의 숫자를 850여명이라고 간주할 때 소수정예 8%는 70여명이 돼 이번에 배출된 220명은 당초 목적보다 약 3배가량이 많은 숫자인 것이다.

이번 첫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전문과목 10개과 중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 7개 전문과목에 대해 시험이

실시됐으며, 레지던트 3년차가 없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는 시험이 실시되지 못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230명이 응시하고 229명이 합격, 99.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만 1명이 불합격 처리됐으며, 다른 6개 전문과목에서는 모두 100% 합격 처리됐다.

2차 시험에서는 229명이 응시한 가운데 22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96.1%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 4명이 불합격 처리됐으며, 교정과에서도 4명이 불합격 처리됐고, 소아치과에서 1명이 불합격처리됐으나 다른 4개과에서는 전원 합격했다.

결과적으로 230명이 응시해 220명이 최종 합격함으로써 최초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의 비율은 95.7%인 것으로 집계됐다.

News
& News

“회원 여러분!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치협, 전문의 다수 배출 관련 사과문 발표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 다수 배출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사과문을 치과계 전체 회원들에게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2월 19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 이름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안성모 협회장 외 전 임원과 이수구 시행위 위원장 외 전 위원 일동의 명의로 발표된 사과문에는 “치협과 시행위는 지난 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소수정예 8% 인원의 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나 참담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스러움과 함께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이어 치협은 “이번 전문의 시험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과문에서는 “앞으로도 치협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치과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전문의소수배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 이하 전문의 특위)는 전문의 시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홈페이지 일반인 자유게시판 잠정폐쇄 정보통신위 회의...3월초 운영 중단

치협 홈페이지에 마련된 일반인 자유게시판이 잠정 폐쇄된다.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는 지난 2월 22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인 자유게시판의 존재 여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의 원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자유게시판에 일반인들이 특정 치과 의사 및 치과병·의원을 지칭해 진료 불만을 토로하는 글 등이 게재돼 개원의와 일반인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 자유게시판 폐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일반인 자유게시판은 준비작업을 거쳐 3월 초나 중순 정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를 비롯, ▲협회 및 지부 업무 전

산표준화 ▲정보화 사업 및 정보통신망 업무효율화 ▲보건 의료정보화 및 건강정보보호 관련 업무 ▲건강보험청구 관련 업무 ▲정보통신 관련행사 참가 ▲치과계 각종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향후 협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협회 홈페이지 관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시범적으로 일반인 게시판을 잠정 폐쇄한 후 장·단점을 살펴보고 영구 폐쇄하자"며 "치과계 각종 자료들을 원활히 데이터베이스화해 차기 임원단의 회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짚었다 경영정책위 교육

오는 7월 복지부가 치과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할 감염실태 조사에 대비해 치협이 효율적인 감염관리 요령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을 개최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심현구)는 지난 2월 23일 협회 대강당에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먼저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 간사인 백승호 서울치대 교수가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소개 및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협회 감염관리 권고안 실천 현황'을 주제로 강연해 세계 각국의 감염관리지침을 소개했다.

백 교수는 1990년 미국 플로리다의 치과의사가 6명의 환자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사건을 소개하며 손씻기와 장갑, 마스크착용, 각종치료도구, 소독, 날카로운 도구, 물감염 등 모두 6가지를 외국의 감염관리 주요기관들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강연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치협이 배포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인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협의 감염관리 준비사항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어 연세대 치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간사인 정일영 연세치대 교수가 '치과진료시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의 예방과 노출 후 처치'에 대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행성 각결막염, 결핵, 수두,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등 치과진료시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해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과 교수는 지난 2006년 8월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며 개원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치치재의 소독방법과 감염 예방법에 관해 설명했다.